

發見되었다.

◎ 春川 清平寺 調査

國立博物館 崔淳雨 鄭良謨 兩氏는 九月 一日 清平寺 回轉門 및 極樂殿遺址를 調査하였다.

◎ 울릉도 古墳 調査

서울大學校 金元龍 教授 및 國立博物館 金正基氏는 年來로 實施해 오던 울릉도의 古墳을 계속 調査하기爲하여 九月 一日 金正基氏가 二週日 豫定으로 先發하였다.

◎ 道峯山 遺蹟 調査

國立博物館 鄭良謨氏는 道峯山 望月寺 周邊에 散在하는 李朝初期의 陶窯址를 調査하기爲하여 八月 下旬 以來 連 三次에 걸쳐 現地를 踏查하였다.

◎ 公州地區 窯址踏查

國立博物館 崔淳雨氏 一行은 九月 十一일부터 三日間 公州地區의 窯址를 踏查하였다.

◎ 李朝時代 肖像畫 特別展示

國立博物館에서는 各博物館 美術館 및 個人收藏家가 所藏하는 李朝時代 肖像畫 三十三點을 選擇해서 特別展示하고 있다(自八月 三十一日 至九月 三十日).

東南亞紀行

黃 壽 永

四月九日 파키스탄에서 다시 印 뉴·델히로 돌아와 歸國日까지 十日間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이 아름다운 首都에도 情이 들었는데 우리公館과 文化科學省, 國立博物館, 考古局같은 곳을 찾아 人事와 書冊을 求하기도 하였읍니다. 그 사이

各地에서 모은 약간의 文獻도 이곳 아세아財團의 好意로서 發送케 되어 한결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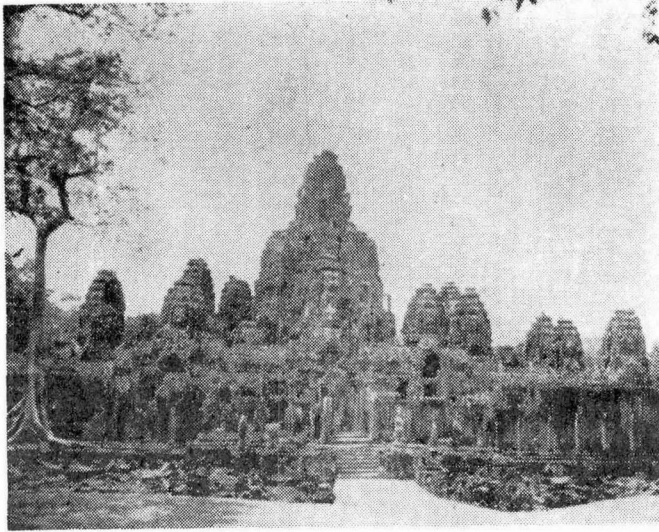
四月 十八日 아침 九시 韓麒麟 總領事 夫妻의 餞送을 받아 뉴·델히 空港을 出發하였읍니다. 그리하여 三시간만에 칼자타에 도착하였는데 恒河를 따라 印大陸을 橫斷하면서 지난날의 記憶을 더듬어 감개무량하였읍니다. 칼자타에 내리니 氣溫이 높아 待合室은 한층막과 같았는데 百度를 넘고 있는 뉴·델히와 大差없이 느껴졌읍니다. 이곳서 午後 二時半 타이 航空便으로 떠나 六시 버마의 란군空港에 나섰는데 이 곳은 往路에도 잠시 들렸던 곳입니다. 空港에는 北韓의 記者一行이 印尼에서 열리는 會議에 간다고 모여 있었는데 나의 身分이 몹시 궁극한 눈치였읍니다. 公館에서 저녁을 들면서 往來行을 물었으나 週一回, 航空便이 있을 뿐이라고 하기에 이번에 斷念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代身 明日 페구까지 汽車便으로 往復키로 하였읍니다. 페구에서는 巨大한 涅槃像으로 이름난 슈다렘寺院과 大塔으로 이름난 수도로寺院을 찾았는데 모두 規模가 클 뿐 古態를 잃고 있었읍니다. 다만 沿線의 高樓式 民家와 더위에 시달린 民生이 눈에 띈 것을 뿐이었읍니다. 이날 저녁 란군驛에 도착하는 셀박氏가 마중을 나와 있어 그의 寄寓에서 하루밤을 지내며 버마의 최근 情勢를 듣기도 하였는데 그는 우리나라에 돌아올 날을 바라는 듯 하였읍니다.

翌朝(4/20) 豫定을 바꾸어 泰國으로 떠나기로 하였는데 마침 PAA의 ジェット 機便이 있어 十時半 出發 한 시간만에 방콕空港에 도착할 수 있었읍니다. 란군空港에는 이날 正午頃에 도착한다는 中共主席을 맞이하기 위하여 最大의 歡迎준비가 되었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버마의 中共關係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르는 우리 中立國公館들의 어려운 環境을 한층 同情할 수 있었읍니다.

방콕市內에서 寄寓를 잡고 博物館을 찾았으나 마침 休日이어서 전년편의 市場을 걸어 보았는데 安定된 이 나라의 生活를 엿볼 수 있었읍니다. 저녁에는 우리 大使館의 姜永奎書記官이 찾아와 함께 劉大使宅을 찾아 저녁을 들었읍니다. 劉大使는 考古美術에 많은 趣味를 가진 분으로 室內의 愛翫品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읍니다. 翌二十一日 아침 메콩河를 건너 汽車便으로 이 나라 佛教初傳의 땅인 나콘파웁으로 泰國 最大 最古의 大塔을 찾았는데 그 塔은 歷代의 重修를 거듭한 原態를 잃고 있었으나 發掘된 石像 등은 注目할만 하였읍니다. 佛스便으로 다시 방콕에 돌아와 國立博物館을 찾았는데 金石의 大小像들이 가득하였읍니다. 佛像 以外에 暹두 教의 神像들이 있는 것은 印度와의 關係를 말하여주는 것이었읍니다. 泰國北部에

는 古代의 많은 遺跡들이 있다는 바 그들의 조사는 앞으로 機會를 얻어야 될 것
입니다. 博物館을 떠나 王宮과 隣接한 寺院을 찾았는데 이곳에는 에메랄드本尊
이 있어 유명하기도 합니다. 華麗한 塔殿이 좁은 境內에 가득히 配置되었는데
모두 金箔과 色유리로 장식되어 있어 호화찬란한 印象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이같은 過多한 裝飾手法은 印度를 비롯한 東南亞 各國에서 共通된 것입니다.

四月二十三日 正午 베트남機便으로 캄보디아의 서울인 푸놈·펜에 도착하였는
데 泰國에 비하여 活氣를 느낄 수 없으며 호텔에서의 外貨의 暗거래로 보아 이나
라 經濟事情이 짐작되었습니다. 이나라는 佛蘭西의 오랜 支配를 받아왔던만
큼 佛語가 普及되었고 生活樣式도 그러하였읍니다. 이곳에 開設된 우리 公館은
작은 규모이나 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읍니다. 이곳 博物館을 두번 찾았
는데 일찌기 佛人에 의하여 設立되었고 現在도 佛人館長이라고 하기에 整頓된
陳列이 수공되었습니다. 館內에는 우수한 印度教石像이 多數인데 北部等地的 遺



跡에서 옮겨온 것이라
합니다. 이 캄보디아

에서 큰 期待는 앙콜·
왈의 訪問이었는데 우
리 公館의 주선으로 이
곳 中國系 富商의子弟
인 廓氏가 家用車로
同行키로 되었습니다.
氏는 中立國인 이나라
에서 드물게 보는 反共
主義者로서 濠州留學
에서 돌아온 靑年이었
읍니다.

四月二十四日 아침八
시出發하여 메콩河를
건너 北上 午後三시 십
· 림에 도착하였는 데
三二〇km의 平坦한 道
路는 모두 포장되어 있

었습니다. 宿舎에서 잠시 쉬고 이곳서 멀리 않은 앙콜·왈과 앙콜·툼을 찾아 내
部에는 들지 않고 觀光道路만을 一巡하였는데 祠院規模의 크기와 地域의 廣大한
에 먼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들고 나서 다시 앙콜·왈을 찾았는
데 市場에서 구한 햇불에 비치는 本殿 左右廓의 浮彫壁面은 壯觀이었습니다. 그
러나 달이 없는 漆黒의 어둠 속에서 큰 印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翌二十五
日은 終日 더위를 무릅쓰고 各祠院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앙콜·왈과 앙
콜·툼(사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石造建物の 樣式에서 印度와의 關聯을
볼 수 있었으며 屋蓋樣式과 人物像 등에서 이곳의 特色을 살필 수도 있었습니다.
앙콜·툼에서 멀리 않은 廣場에는 道路가 가까이 긴 石壇이 있는데 그 전면에 怪物象
人物들이 浮刻된 것은 이곳서 볼 수 있었던 最大作品의 하나였습니다. 이곳을 떠
나 여러 宮殿址 祠院址들을 잠깐 들여다 보며 혹은 길 위에서 攝影하기에 그치지
도 하였읍니다. 그중에서도 넓은 方形平面 위에(중층이)築壇하고 最頂에 이르러
中央一塔과 四隅各一小塔을 配置한 수법은 혹은 石造로서 혹은 埴築으로서 變化
를 보이기도 하였읍니다. 規模는 모두 커서 놀라운 遺構이었는데 이같은 一大都
市를 건설하던 民族의 宗教와 文化 그를 뒷받침하던 政治的 經濟的 背景을 짐작
할만 하였읍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고 큰 對象이었기에 整理를 못하면서
翌朝이 곳을 떠나는 하였으나 東南亞 最大의 古代遺跡을 볼 수 있었던 즐거움
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四月二十七日 午後四時 캄보디아를 떠나 越南의 서울인 사이공에 도착하였읍
니다. 비행장에는 文哲淳參事官이 마중나와 있어 再會를 즐기워하였고宅을 찾아
고향음식을 들을수도 있었읍니다. 治安때문에 郊外로 나가지는 못한다고 하나 市
內에서는 戰時風을 볼 수 있었읍니다. 翌朝 廓氏가 子女를 데리고 찾아 왔기에 公
園으로 博物館을 찾았는데 약간의 印度教石像과 高約一m의 셀른樣式的 靑銅立
像이 注目되었을 뿐이었읍니다. 이날 午後에 다시 이곳을 떠나 밤 十時 香港에
도착하였는데 空中에서 보는 夜景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翌日(四月一九日) 午
前中 우리 公館訪問과 몇 가지의 쏘핑을 끝내고 午後 다시 CPA機便으로 臺北
에 도착하고 보니 故國이 가까워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大使館에서도 舊
面의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이것은 韓日會談에 關係하였던 때문이라 하
겠습니다. 臺北의 國立歷史博物館은 一部 閉鎖中이었으나 戰後 日本서 返還된 物
品(崇福寺 石造九層塔 등)과 敦煌壁畫室이 印象에 남았으며 五月一日 찾아간 臺中
의 故宮博物館에서는 本土에서 疏開된 古書畫靑銅玉器 등 一部만이 陳列되어 있

있었습니다. 五月二日 아침 十一시 台北을 떠나 午後 三時 日本 大阪에 도착하여 奈良으로 直行하였습니다. 五月三日에는 奈良博物館(刺繡佛教美術展) ↓ 依水園(宋과 高麗陶磁器展) ↓ 大和文華館(日本近代繪畫展)을 順次로 들었으며 四日에는 다시 大阪에서 京都大學의 「第三次이란·아후가니스탄·파키스탄 調査報告會」에 參席할 수 있었으며 講演이 끝난 다음 水野精一 教授一行 四·五人과 부근의 다방을 찾아 우리나라 佛教美術을 이야기하였습니다. 五日에는 京都에서 梅原有光 兩教授를 만날 수 있었고 每月二回 公開하는 有隣館을 찾아 中國石像을 다시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날 저녁에는 東京行 航空便의 出發時間을 이용하여 大阪비행장에서 멀지 않은 藤澤氏를 訪問하여 우리나라 扶餘에서 結婚하였다는 그들 夫妻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六일부터 八일까지의 三日間 東京에서는 上野에서 開催중인 關東아展이 기억을 새롭게 하였으며 東京藝大의 松本榮一 教授와 中吉功氏, 同窓인 印翹煥氏 金大鉉君 등과의 再會를 즐기도 하였습니다. 五月九日 CAT의 ジェット機便으로 十時넘어 金浦空港에 나섰습니다. 五個月만에 對하는 山川과 서울의 거리는 虛脫과 窮相이 뚜렷하였습니다. 혼자서 집에 돌아와 自身과 家族의 無事함을 고맙게 생각하였으며 同人과의 再會를 반가워 하였습니다(完)

〔訂正〕 前號(四一八) ねがわ紀行에 添附된 寫眞(上)은 廢塔(짜이부리 보안탄)이 었기 訂正합니다(三四頁上段十三行)

石窟庵通信(十二)

鄭 明 鎬

一、工事關係

1. 二重窟

二重窟 콘크리트 施工이 本格的으로 進行中이다. 窟背 後로부터 延長되는 排水路暗渠 配筋架設을 東北部로부터 始作(8/4). 窟의 基礎配筋은 東北(8/9) 南西(8/2)에서 着手되어 콘크리트 壁體進行. 窟 뒤의 岩盤 上面에는 階段基礎가 마련되고 있으며 동시에 穹窿形의 堰枠를 架設中이다(8/27). 前室아치 위의 石築을 除去키 위하여 補強用木造架構를 세웠다(8/23).

2. 前室

第四卷 第十號 通卷三十九號

前室의 平面과 樣式은 確定되었다. 單層판까지의 正面三間 側面二間이며 樣式은 現存最古遺構에서 採擇하고 拱包部分과 門扉만은 新羅石造遺構 特히 佛國寺와 石窟 自體에서 본따기로 하였다. 屋蓋는 羅代의 手法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九월一日부터 製材를 進行하고 있다. 이 期間中 十分之一의 前室模型이 完成되었으며 또 前室과 窟과의 調整도 決定되었다.

二、環境整理 設計

窟과 前室工事が 進展함에 따라 石窟庵 周邊 地形模型이 作成되고(8/12) 새로운 設計案에 着手하였다(8/28).

三、調査關係

(1) 콘크리트 施工에 따르는 配合과 強度實驗을 嶺南國土建設局에 依頼. 蓋瓦 注文을 위하여 蔚山과 경주 乾川工場의 施設과 土質 등을 調査(柳海宗)하였고 既成品의 強度와 含水度를 實驗하였다.

(2) 8/8 佛國寺(아치 石築 檐遮 柱頭) ↓ 嶺項里寺址塔(門扉) 8/10 高仙寺址塔(門扉)(金光洙 申榮秀) 8/28 九政里方形古墳(門扉及 石築)

(3) 壽光殿으로 올라가는 階段에서 心枋石片(8/13)發見. 前室入口 左右의 檐遮石에서 中間空을 끼었던 彫刻手法이 새로이 調査되었다(8/16).

(4) 오래동안 行方을 찾고 있던 縣板「石窟重修上棟文」(本誌 資料 參照)이 庵子北方 便所 板壁에서 發見되었는데 頭尾가 切斷되어 있었다(露出된 東面).

四、人事往來

8/9 文化財委員 金岸基 李弘植 李相伯 金元龍 鄭文化財管理局長 金道教育局長 一行 8/19 鄭永鎬 8/26 文化財委員 金載元 李敏載 9/1 國博 金正基 張南植 金錫淳 慶北博 尹容鎮 安東郡廳 安承一

第四卷 第十號 通卷三十九號

永同新項里三尊佛石像

秦 弘 燮

永同郡 龍山面에 三尊石像이 있다는 말을 들은지는 오랫동안이나 今年 八